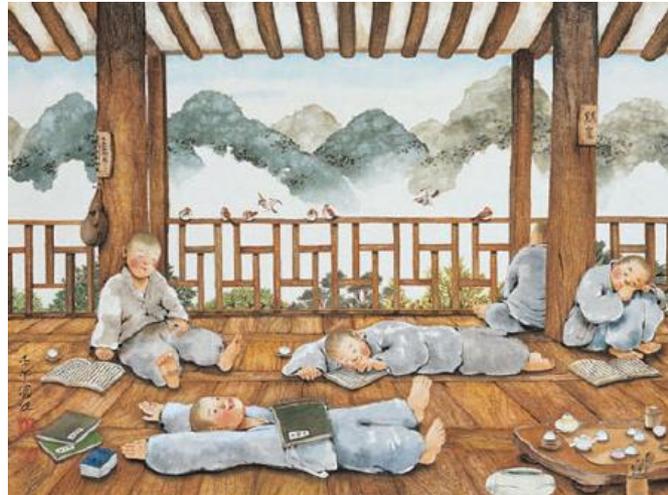


간화선 소개 (3)



2024 년 04월 22 일

维仁 박선흠 / 수선회

Northern California Korean Zen Association

<http://koreanzen.org>



죽은 화두 vs. 산 화두 (活句)

- 내가 없이 의심이 딱 걸려서 생각이 쉬는 곳 vs. 내가 있어 생각과 논리가 성할 때
- 생각이 끊어진 상태, 만사를 생각하지 않을 때 vs. 산란한 마음, Monkey Mind
-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 선도 생각 말고 악도 생각 않는 그때, 무엇이 본래면목인가? vs. 현상작용에 끌려 가는 자리
- 무심할 때, 평상심 vs. 뭘까? 왜? 라는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면 광 , 분별심
- 한 생각이 일어나는 곳과 때 vs. 생각에 생각의 꼬리를 물고 갈 때
- 완전히 깨어 있을 때, 각성한 상태 vs. 깨어있음에 집착할때
- 영원히 머물 곳을 얻었다고 할 때, 영원한 그 자리 vs. 마음이 이리저리 날뛸
- 모든 시간이 공존하는 곳,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함께 있다
- 모든 공간이 공존하는 곳, 모든 존재가 함께 하는 곳
-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 Big Bang or Black hole of Universe
- 성성 적적 (惺惺寂寂) 하다, 역력(历历) 하다 vs. 무기(无记) 에 빠질 때
-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근원 자리, 법신불 vs.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
- 개인에 따라 의심이 크게 걸릴 수도 있고, 작지만 지속성이 있을 수 있음



서장

부추밀에 대한 답신

화두 참구의 목적에 관해서 대해 스님은, "만약 곧바로 계합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을 단박 부수어버려야 합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생사에 요달할 수가 있으며 깨달아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방법으로 화두의 참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두 참구의 목적은 문득 한 생각을 부수어 버리고 견성하는 것이다. 화두는 곧 말[言語]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왜 견성의 방편으로서 '말을 보아라[看話]'고 요구하는가? 대해 스님은 '조주무자' 화두를 제시하고서 말하기를, "이 한 마디 말은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무찌르고 막아주는 무기입니다."라 하고 이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와 수행자의 병통을 언급하고 있다. 즉 화두를 방편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화두가 잘못된 견해와 수행 도중에 처하는 여러 병통을 부수어서 올바른 견성의 길에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으로 대해 스님은, "다만 망상으로 전도된 마음과 사랑분별하는 마음과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과 지견(知見)으로 이해하는 마음과 고요함을 즐기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시에 붙잡아 놓려 두고, 그 붙잡아 놓려 둔 곳에서 다만 화두를 보십시오."라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것은 있으니 없니 라고 이해해서도 안되고, 생각으로 이치를 사랑하고 헤아려서도 안되고, 눈썹을 치켜올리고 눈을 깜박이는 곳에 의지해서도 안되고, 문자로써 증거를 삼아서도 안되고, 일 없는 속으로 도망쳐서도 안됩니다."라고 잘못된 공부를 경계하고 있다. 요컨대, 화두를 참구함에는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말이나 견해의 경계에도 머물러서는 안된다. 어디에든 머무르는 순간 그것과 그것 아닌 것으로 나누어져 이법(二法)에 떨어져 버린다.

이러한 까닭에 무엇보다 먼저 주의할 점으로, "절대로 마음을 두고서 부수길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만약 마음을 부수는 곳에 둔다면 영원히 부술 때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화두를 부수는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곧 화두를 부수는 대상으로 삼지말라는 것이다. 화두를 대상으로 삼으면 늘 화두와 나는 별개로서 자타(自他)의 이원적(二元的) 분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만 하루 종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속에서 늘 잡아쥐고 늘 알고 계셔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를 일상의 삶에서 떼어놓지 마십시오. 만약 이와 같이 공부해간다면 언젠가는 문득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니, 그때에는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라 하고 있다. 스스로 보게 된다는 것은 곧 말[話頭]이 '일어나는 곳[起處]'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말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자신의 자성(自性)에서 일어난다. 말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경험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자성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화두가 일어나는 곳을 안다는 것은 "무---" 할 때, 이 "무---"가 바로 자성일 뿐임을 아는 것이다. 자성은 공(空)이므로, 이미 화두가 자성이요 일상사 모두가 자성임을 "물을 마셔서 그 차고 따스함을 알 듯이" 스스로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러므로 "무---"에는 어떤 다른 의미도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 순간 다만 "무-----"일 따름이고, 이 "무-----" 속에 일상사 모두가 갖추어져 있다. 말[話頭]에 속지 마십시오!



서장

대혜 종고 (1089-1163) (김태완 각주)

제자 증시량이 발심을 내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데 대한 답서 선의 공부란 이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을 위주로 한다. 그러나 분별심이라고 하여 이 마음 밖에 따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 마음의 작용이다. 즉 분별심을 내려 놓는다고 하여 내려놓을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실상에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데, 분별심이라는 환상의 병 때문에 스스로를 고통스런 중생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별심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이미 중생과 부처, 미혹과 깨달음, 분별심과 무분별심을 나누고 있는 분별심에서의 말이다. 그렇지만 분별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실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 분별심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분별심이라는 환상의 병을 분별심이라는 환상의 약으로 치료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금강경}에서는 여래가 하는 모든 말은 방편일 뿐이라고 한 것이다. 여래의 말은 진리가 아니라 환상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환상의 약일 뿐이다. 병을 치료한 뒤에도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분별심은 어떻게 되었는가? 분별심도 여전하다. 다만 이제는 분별심의 실상을 알아서 내려놓았으므로 더 이상 분별심의 노예가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혹자는 분별심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분별 없이 막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무 생각도 없는 고요함으로 오해하지만, 이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분별 없는 막된 행동이나 생각 없는 고요함은 무분별이라는 분별심에 빠져 있는 것일 뿐이다. 진정으로 분별심을 내려 놓았다면 이제 분별심의 정체를 알고 있으므로 이전보다 훨씬 더 적절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전은 분별심의 노예가 되어 영문도 모르고 분별심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분별심의 주인이 되어 분별심을 적절히 부릴 수 있는 것이다.



서장

대혜 종고 (1089-1163) (김태완 각주)

17. 진소경 계임: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 스님은 “무(無).”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글자는 곧 **생사(生死)의 의심을 부수어버리는 칼입니다**. 이 칼의 자루는 다만 자기의 손아귀에 있을 뿐이니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자신이 직접 손을 대어야 비로소 얻게 됩니다. 만약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즐겨 스스로 손을 대겠지만, 만약 목숨을 버릴 수 없다면, 우선 단지 의심이 부서지지 않은 곳에서 붙잡고 버티십시오. 문득 스스로 기꺼이 목숨을 한 번 놓아 버리면, 바로 끝납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고요한 때가 곧 시끄러운 때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에게 묻지 않고도 저절로 샷된 스승이 도를 어지럽히는 어리석은 말은 듣지 않게 됩니다.

불법은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다. 다만 아직 묘한 곳에 이르지 못했다면 서로 길고 짧음이 있겠지만, 진실로 묘한 곳에 이르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자신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본래부터 부처임을 여실히 알면, 여실히 자재(自在)할 것이고 여실히 안락할 것이고 여실히 해탈할 것이고 여실히 청정할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오직 자기의 마음을 쓸 뿐이니, 자기 마음의 변화를 붙잡으면 바로 쓸 뿐, 그 옳고 그름을 묻지 말라.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하면 바로 옳지 않게 된다.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면, 하나 하나가 진실하며 하나 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 하나가,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청정함도 그것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에 미혹한 까닭에 중생이 되고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 까닭에 부처가 된다. 중생이 바로 부처이고 부처가 바로 중생이지만, 미혹함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는 것이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 마음을 믿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깨닫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밝고 묘한 작용을 얻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의 안락한 해탈을 얻지 아니하고, 마음 밖에 망녕되이 선(禪)의 길이 있다고 여겨서 망녕되이 기특한 일을 세우고 망녕되이 취하고 버린다. 그러므로 비록 수행하더라도 외도(外道)와 이승의 선적단견(禪寂斷見)의 경계에 떨어져 버린다. 이른바 수행에서는 단상(斷常)의 두 변견(邊見)에 떨어짐을 두려워하니, 단견(斷見)은 자기 마음의 본래 묘하고 밝은 본성을 끊어 없애버리고 오로지 마음 밖에서 공(空)에 집착하여 선적(禪寂)에 막히는 것이요, 상견(常見)은 일체법이 공(空)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간의 온갖 유위법(有爲法)에 집착하여 그것을 궁극으로 삼는 것이다.



서장

대혜 종고 (1089-1163) (김태완 각주)

1. 증시랑 천유: 저는 어릴 때부터 발심(發心)해서 선지식을 찾아뵙고 이 일(일대사인연)을 여쭙었으나 20살 이후에 혼인과 벼슬에 꺼들림을 당해 공부가 순일(純一)하지 못하고 이력저력 지금의 늙음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 들은 바 없어 항상 스스로 탄식하고 부끄럽게 여기지만 뜻을 세워 발원(發願)함은 진실로 알은 지견(知見)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려니와 깨닫는다면 반드시 바로 옛 조사스님들께서 몸소 증득한 곳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크게 쉬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마음은 비록 일찍이 한 생각도 물러남이 없었으나 스스로 공부가 마침내 순일하지 못함을 느꼈으니 뜻과 원은 크나 역량이 작다하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가정의 세속 인연을 다 마치고 한가하게 있으면서 다른 일 없어 바로 간절히 스스로 채찍질해 처음 세운 뜻을 갠고 싶습니다만 다만 직접 가까이서 가르침을 얻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일생의 허물을 이미 날날이 아뢰니 반드시 이 마음을 환히 비취주실 수 있으시니, 바라옵건대 자세하게 경책(警策)하고 제시해주십시오. 평소에 마땅히 어떻게 공부를 해야 거의 다른 길을 밟지 않고 바로 본분 자리와 서로 계합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림도 허물이 또한 적지 않으나 오로지 정성을 바칠 따름입니다. 스스로 숨기기가 어려우니 진실로 불쌍하다 하겠습니다. 지극히 여쭙니다.

헛되다고 한다면, 업(業)을 지을 때에도 헛되고 과보(果報)를 받을 때에도 헛되며, 알아 깨우칠 때에도 헛되고 어리석게 전도(顛倒)될 때에도 헛되며, 과거.현재.미래가 모두 헛됩니다. 오늘 잘못되었음을 안다면 헛됨을 약으로 삼아 다시 헛된 병을 치료하여 병이 나아 약을 치우면 여전히 다만 옛날 그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 사람이 따로 있고 법(法)이 따로 있다면 이것은 샅된 외도(外道)의 견해입니다.

19. 조대제 도부: 부처님이 또 말씀하시길, “믿음은 도(道)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니, 모든 선법(善法)을 길러서, 의심의 그물을 끊고, 갈애(渴愛)의 흐름을 벗어나게 하여, 열반의 위 없는 도(道)를 열어 보인다.”고 하시고, 다시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잘 키워서 반드시 아래의 지위에 도달케 한다.”라 하셨습니다.



벽암록 1칙

설두중현(980-1052) 원오 극근(1063-1135)

- {벽암록} 제1칙에서는 이러한 선불교의 정신을 부처님의 정법을 이은 선종의 초조인 달마에게 불법천자로 유명한 양무제가 질문하는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달마는 일체의 만법은 본래 텅 빈 것(一切皆空)인데 성(聖)스럽다고 할 고정된 법은 없다고 대답한다.

{금강경}에는 ‘고정된 법은 없다(無有定法)’는 말이 있다. 반야의 지혜는 마음을 어디서도 머무름이 없도록 하는 무주(無住)와 어떠한 경계나 모양도 취하지 않는 무상(無相)의 실천을 하라는 것이다. 즉 불법은 시간과 공간이 함께하는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일체의 존재와 함께 반야의 지혜와 자비를 나누는 삶을 지혜롭게 사는 가르침이다.



벽암록 2칙

설두중현(980-1052) 원오 극근(1063-1135)

- 조주화상이 대중스님들에게 법문 하였다.
“지극한 불도는 조금도 어렵지 않다. 오직 취사 선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말하는 순간에 벌써 취사선택(揀擇)하는 마음에 떨어지거나 깨달음(明白)의 세계에 떨어진다.’ 나는 깨달음(明白)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데 그대들은 이 깨달음(明白)의 경지를 수행의 목적으로 삼고 보호하고 아끼려고 하는가?”
- 선수행은 미혹함과 깨달음을 모두 함께 초월해야 올바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다. 미혹함에서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경지에 도달하고 그곳에 안주하게 되면 깨달음의 경계가 결국 집착의 대상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또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은 올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고 불도를 장애하는 수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수행자의 선병(禪病)이 된다.



벽암록 3칙

설두중현(980-1052) 원오 극근(1063-1135)

- 마조화상의 병환생사대립 초월한 경지가 곧 ‘법신불 세계’
마조도일화상이 병환으로 몸이 편치 않았다.
원주스님은 마조화상에게 물었다.
“화상께서는 요즈음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마조화상이 대답했다.
“일면불 월면불(日面佛 月面佛) 이네.”
- 마조화상은 원주의 질문에 “일면불 월면불” 이라고 대답한 의미는 무엇인가?
마조화상은 자신의 경지를 ‘일면불과 월면불’로 표현하고 있다. 일면불과 월면불은 불명경에서는 수명이 짧은 월면불, 수명이 긴 일면불로 설명하고 있지만, 부처는 수명의 길고 짧음에 관계할 것 없이 일체의 차별심과 분별심을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법신불의 지혜로 살고 있는 것이다.

마조화상은 원주가 육체적인 병환을 걱정하여 여쭙는 질문에 자신의 입장을 병환으로 고통받는 육체적인 대상을 설정하여 대답하지 않고, 병든 환자의 몸과 병들지 않은 육체, 육체나 마음이라는 이원적(二元的)이고 상대적, 차별적인 분별심을 초월한 법신의 경지에 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